

식민지 조선인, 네이티브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의 죽음^{*} — 김남천의 『미담(美談)』을 중심으로

이진형^{**}

1. 식민지 조선인, 또는 디아스포라
2.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토착민
3. '착살'의 윤리와 디아스포라적 감정
4. 디아스포라적 개입: 죽음 또는 내파
5. 제국주의의 불가능성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디아스포라' 개념을 통해 김남천의 단편소설 『미담(美談)』에 접근함으로써 식민지 조선 농촌의 변화와 그에 대한 토착민의 대응, 그리고 제국주의의 내적 균열을 살펴 보는 데 있다.

김남천의 『미담』은 식민지 조선 농민의 디아스포라화와 죽음을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박왈수는 소작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근면함으로 마을에서 『미담』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지만, 일제의 농촌개발정책과 산금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산업과 공간이 재편되면서 임금 노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이 선택은 착살의 윤리에 의한 디아스포라적 감정의 잠재화를 유도하는 한편, 디아스포라적 감정에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조교수.

의해 조건지어진 토착민의 과잉된 행동(정체성 협상 실패의 표시)과 그에 수반한 죽음을 유발했다. 이는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과 죽음을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 대한 이중의 'diasporic 개입'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은 상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실된 고향(공동체)을 복원하려는 시도였고, 그의 죽음은 임금 노동자의 자기 파괴임과 동시에 그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내파였다.

디아스포라 개념과 그 감정에 주목하는 것은 근대적 식민 주체의 존재 상태(탈구 위치)를 포착하게 해주는 한편, 그 존재 상태를 조건 짓는 제국주의 체제의 균열 가능성 또한 사유하게 해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어쩌면 민족 대립이나 지배/저항의 문제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제국주의의 추문일지도 모른다.

(주제어: 근대화, 식민화, 고향, 공동체, 디아스포라적 감정, 디아스포라적 개입, 네이티브 디아스포라, 네거티브 디아스포라)

1. 식민지 조선인, 또는 디아스포라

이 글의 목적은 '디아스포라' 개념을 통해 김남천 단편소설 『미담(美談)』(『비판』, 1938.6)¹⁾에 접근함으로써 식민지 조선 농촌의 변화와 그에 대한 토착민의 대응, 그리고 제국주의의 내적 균열을 살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전개되는 토착민의 디아스포라화

1) 인용문은 단행본 『少年行』(학예사, 1939)에 실린 『美談』을 활용했음. 이후 인용 시 본문에 단행본의 쪽수만 표기함.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와 그에 수반하는 디아스포라적 감정 및 존재 상태(탈구 위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어원학적으로 그리스어 동사 'Speiro'('씨 뿌리다')와 전치사 'Dia'('위')의 합성어로서, 바빌론 유수(586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 또는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 어원 덕분에 오늘날 디아스포라 논의에서도 '비자발적 이주'와 '다양한 관계망 형성'은 중심적인 의미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디아스포라의 의미 폭은 단순한 유대인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고향(모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되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개념은 여전히 '비자발적'으로 고향(모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부재하는 고향(모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망(유대)을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²⁾ 이와 더불어 고향(모국)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이라는 감정 또한 디아스포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강제 이동, 국외 추방, 불가능한 귀환이 디아스포라의 존재론적 조건이라면, '상실감'과 '그리움'은 그에 수반하는 정서적 반응일 수밖에 없다.³⁾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란 존재론적으로 '비자발적 이주' 상태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감정적으로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 이해는 그 동안 식민지 시기 연구에서 커다란 유용성을 입증해 왔다. 한반도의 이주사를 살펴 보면, 조선인 이주의 역사는 17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2)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최영석 역, 엘피, 2016, 29-30쪽.

3) 비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정영주 역, 에코리브르, 2014, 24-27쪽.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이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⁴⁾ 이 시기 많은 조선인들이 정치적 탄압, 경제적 궁핍, 군사적·경제적 강요 등 여러 이유에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인근 지역들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45년 무렵에는 조선인 이주민의 수가 397만 5천여 명(중국 170만 명, 일본 210만 명, 구소련 17만 5천 명 등)에 이를 정도였다.⁵⁾ 연구자들은 이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명명하며 연구를 진행했고, 2017년 4월 현재 학술 논문과 학술서가 수천 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축적하기에 이르렀다.⁶⁾ 한국 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디아스포라 개념을 활용해 식민지 시기 만주, 일본 등지에 거주했던 이주민 작가의 작품들 또는 해외 이주 경험을 그린 작품들을 다룬 연구 논문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⁷⁾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집단적 주

4)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한국인구학회, 2009, 33쪽.

5) 김성민·박영균, 『분단극복의 민족적 과제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대동철학』 58, 대동철학회, 2012, 48쪽.

6) 2017년 4월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키워드로 넣으면 15편의 국내학술지 논문, 108권의 단행본이 검색된다. 그러나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통칭되곤 하는 세 집단, 즉 ‘재일(在日)’, ‘조선족’, ‘고려인’을 키워드로 넣으면 각각 2,975편의 국내학술지 논문과 4,727권의 단행본, 2,642편의 국내학술지 논문과 2,457권의 단행본, 836편의 국내학술지 논문과 995권의 단행본이 검색된다.(2017년 4월 3일 검색 결과)

7) 식민지 시기 문학 연구에 디아스포라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주요 연구 사례로는 광명숙의 『운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2012), 구모룡의 『운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구재진의 『이산문학으로서의 강경애 소설과 서발틴 여성』(『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김관웅의 『“디아스포라 작가” 김학철의 문화신분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7, 한중인문학회, 2009), 김미란의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김양선의 『강경애 후기 소설과 체험의 윤리학-이산과 모성 체험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김영주의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인식과 만주성 연구』(『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체로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개념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시기 또는 포스트식민 시기 디아스포라의 삶과 경험을 충실히 기술하고 재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과 그에 의한 피식민지인의 고통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분법을 고수하면 제국주의와 디아스포라가 맺고 있는 역설적 연루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 제국주의가 디아스포라의 생산자일 수 있고 디아스포라가 제국주의의 내적 균열자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식민지 시기 디아스포라가 제국주의에 의한 불가피한 생산물이라면, 디아스포라는 어쩌면 제국주의의 작동을 위한 필수 동력일 수도 있고, 그런 한에서 제국주의와 디아스포라는 내적 연루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글은 바로 이 연루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해외 이주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고향(모국)에서 전개된 토착민의 디아스포라화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 통치 초기 조선 국토의 약 40%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국유화한 뒤 이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 토지회사와 일본인 이민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불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에 거주하던 많은 토착민들은 소작농과 자작농, 심지어는 지주까지도 고향을 떠나 대도시나 해

2011), 김응교의 『백석·일본·아일랜드』(『민족문화사연구』 4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오문석의 『운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윤은경의 『유치환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혼종성』(『비평문학』 54, 한국비평문학회, 2014), 이유미의 『식민지 한국 정치소설의 모색과 이항우: 미주(美洲) 발간 『신한민보』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이춘매의 『김사량의 소설에 반영된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삶과 이산(離散)』(『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2010) 등이 있다.

외로 이주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 및 산업 구조의 급속한 재편 속에서도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못한/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는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기에, 일부는 삶의 기반을 모두 포기할 수 없었기에 기존 거주지에서 삶을 지속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토착민들은 변화된 세계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삶을 지속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구 위치(dislocation)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에 의해 재구조화된 세계는 그들의 기존 생활 방식에 낯선 것이었고, 그런 만큼 그 세계와 전통적 공동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토착민들은 계속 고향(모국)에 남아살아가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영토는 기존의 고향(공동체)도 소망하는 장소도 아닌 낯선 공간, 말하자면 고향 아닌 고향이었다. 이 글에서는 고향 아닌 고향에서 살아갔던 토착민을 '네이티브 디아스포라'(native diaspora)⁸⁾로 명명하고, 김남천의 『미담』을 통해 이 토착민 유형의 탈구 위치와 디아스포라적 감정, 그리고 그에 기인하는 죽음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제국주의에 의한 생산물로서 제국주의의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국주의 체제의 균열자로서 기능할 수도 있음

8)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임경규가 『화이트 디아스포라 vs.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임경규 외, 『디아스포라 지형학』, 앨피, 2016)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보 전쟁에 나섰던 '화이트 디아스포라'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향을 상실해야 했던 토착민을 말한다.(27쪽) 제국주의 디아스포라가 식민 정복을 통해 토착민의 토착성을 강탈한 디아스포라 집단이라면,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땅과 정체성 사이의 기본적 유대 관계를 상실"함으로써 "토착민이면서도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순형용의 구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55쪽)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특유의 이동성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토착민이지만, 고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말하자면,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고향에서 고향을 상실함으로써 '비자발적 이주'를 경험한 존재이자, 고향성을 박탈당한 거주지에서 부재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을 보여주려고 한다.

김남천의 단편소설 『미담』은 소작인지만 농사뿐만 아닌 마을 대소사까지 다 돌볼 정도로 근면한 인물 박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근면한 소작농 박왈수가 금광 열풍 속에서 농사 지을 자그마한 밭이라도 구입하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광구(鑛區)에 나가 일을 하지만, 금 발굴 작업 중 바위 틈새에 남아 있는 화약의 폭발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게 이 작품의 줄거리다. 박왈수의 이야기는 제국주의에 의한 농촌의 산업 구조 재편(농업에서 광업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한 토착민이 고향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임금 노동자가 되어 ‘착실(着實)’의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과 함께,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 또는 고향 아닌 고향에서 정체성 협상에 실패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을 제시해준다. 이때 공동체적 삶에 대한 디아스포라 특유의 감정(‘그리움’과 ‘상실감’)에 의해 촉발된 그의 과잉된 행동과 최종적 죽음은,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제국주의 체제의 운용을 위한 필수 동력이기도 하지만 제국주의의 내적 균열 가능성 또는 제국주의의 구성적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징표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개념을 통해 『미담』에 접근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의 근대적 재구조화와 그에 따른 토착민의 디아스포라화를 살펴보는 데뿐만 아닌, 제국주의와 디아스포라가 맺고 있는 역설적 연루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농촌의 근대화 과정에 관해 간단히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금정책을 비롯한 일제의 농촌개발정책을 통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면화, 그리고 토착민의 디아스포라화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다음에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대응(정체성 협상 시도와 최종적 실패)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변화된 세계에서 요구되는 ‘착실’의

윤리와 디아스포라적 감정 간 긴장 관계, 그리고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탈구 위치와 그에 따른 과잉된 행동이 갖는 의미를 해명하려 한다. 그리고는 박왈수의 죽음을 ‘디아스포라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자기 파괴와 식민화=근대화된 세계의 내파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내적 균열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때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네거티브 디아스포라로 재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2.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토착민

『미담』은 ‘내가 여관 경영을 하는 고향 친구에게서 박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왈수는 비록 소작인에 불과하지만 특유의 근면함으로 마을에서 비교적 성공한 축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 “바가지차구” “밥을빌려” 다녔지만, 현재는 “잘산다구 할순없다드래두 집두 삼백원자리를 쓰구있고 소가두짝이오 작년엔 강가에 밭두 한반때기”(244) 마련해서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한다. 게다가 그는 밤낮없이 일을 해 지주의 수확을 늘려 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 또한 도맡아 처리하는 인물로도 유명하다. 겨울철 눈이 올 때면 아침 일찍 눈을 치워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누군가 토벽을 쌓는다든가 헛간이라도 지을 때면 늘 짬을 내 도와 준다. 그 때문에 지주들은 근면한 박왈수에게 소작을 맡기고, 작은 일거리라도 있으면 그에게서 일손을 빌린다. 말하자면, 박왈수는 땅에 기반한 전통적 공동체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상호부조 관계를 토대로 성공담(美談)을 주조해 낸 인물이다.

박왈수의 근면한 생활과 성공담은 금광 열풍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금광을 중심으로 농촌의 산업이 재편되면서 전통적 공동체는 해체되고 박왈수의 생활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모한다. 땅에 기반한 공동체가 안정된 생활 장소로서의 자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의 근면함은 이제 농사를 짓는 밭이 아닌 금을 산출하는 광산에 투여된다. 그리고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 변화한 세계에서는 그의 성공담 또한 더 이상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남지는 않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서술자의 진술에는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좀 질색할노릇은 이쯤 금값이 올루구 시세가 이리되는판에 이 사람이 금광에 맞을디렸나보테. 침은 강변에가서 모새와작얌을 츠구 일구 해서 제법 공전은 버렸는데 이건 또 허가없인 못한다구해서 자작 광산으루가서 분광두 얻어하구 또 삭전받구 텅(정)질두 하는모양인데 이렇게 물욕이세서 하는일이 색갈리른 농사에 충실키 어려울걸. 물욕두 어느정도까지 더치믄 외려 거꾸루 흐르는법일세. (245-246)

과거 박왈수는 틈만 나면 밭에 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강변”이나 “광산”에서 금 채취 작업에 몰두한다. 더 나아가 박왈수는 “광부로서 자기의로동을 팔기로”(253)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는 단지 노동의 장소가 밭에서 금광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을 팔기로” 한다는 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진입한다는 것, 즉 과거와는 전혀 다른 노동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 농지에 기반한 전근대적 경제 관계에서 벗어나 근대적 의미의 노동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본-노동 관계에 편입된 그는, 이제 임금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박왈수가 진입한 세계는 말 그대로 근대적 세계다. 박왈수는 이 세계에서 큰 아들을 근대적 교육 제도로 교육시키고(‘보통학교’와 ‘농민교’ 줄

업 후 ‘잠업학교’ 입학), 아침이면 마을에서 “자동차조수가 눈곱이 낀채 정거장마중나갈 자동차의 발동을 시키노라구 연신 통탕거리는 기관소리”(248) 듣는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근대적 노동 교환이 이루어지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근대적 문물이 일상화되어 있는 근대적 세계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점은 「미담」의 근대화된 세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화된 세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박왈수가 “농사에 충실키 어려울” 정도로 금 채취에 몰두하게 된 요인, 또한 그가 금광 노동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민지 조선 농촌을 광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한 요인은 사실상 1930년대 시행된 일제의 “산금정책”(249)에 있었다. 여기서 “산금정책”이란 만주사변 이후부터 1943년 10월 금산정비령(金山整備令)을 내리기까지 약 10년 간 전개된 일제의 금 수탈 정책을 말한다.⁹⁾ 이 시기 일제는 일련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중공업화(군수공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지만, 생산재를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금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¹⁰⁾ 이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 농촌의 산업이 금광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왈수가 진입한 세계란 단지 근대적 문물과 제도가 정착한 세계만이 아닌 근대화와 식민화가 동시에 전개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제국주의의

9) 박기주, 『1930년대 조선산금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2-1, 경제사학회, 1988, 121쪽.

10) 식민 권력은 1931년 금수출재금지(金輸出再禁止)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1937년 소위 산금법(産金法), 금준비평가법(金準備平價法), 금자금특별회계법(金資金特別會計法) 등 ‘산금3법’을 제정하고 산금5개년계획을 실시함으로써 금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했다. 특히 1939년 7월에는 조선금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대규모 광산뿐만 아닌 소규모 광산까지도 모두 개발할 정도로 금 채굴에 전력을 기울였다(박기주, 『1930년대 조선산금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2-1, 경제사학회, 1988, 131-153쪽).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된 세계, 즉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인 것이다.

일제의 산금정책에 의해 촉발된 1930년대 조선의 금광 열풍은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를 낳기도 했지만¹¹⁾, 대다수 농민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후의 선택지에 불과했다. 사실상 식민지 시기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조선총독부의 농업개발정책은 전체 조선인 농가의 53%를 소작농으로 만들 정도로 극심한 농민 분해를 일으켰다.¹²⁾ 일본인 지주는 조선의 농지 소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갔지만, 조선인의 경우 자작농은 자소작농으로, 자소작농은 소작농으로 그 지위가 계속해서 하락해 갔다. 특히 수확물의 50% 이상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납부해야 했던 소작농의 경우는 1929년 미국 경제공황, 1930년 풍작으로 인한 쌀값 폭락, 국제적 농산물 가격 폭락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게 되었다.¹³⁾ 결국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임금노동자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고, 당연하게도 그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성행하던 금광 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¹⁴⁾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농업개발정책이 산업의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땅과 토착민의 분리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인구와 공간을 재편하는 소위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금광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주체가 된다는 것, 즉 근대적 식민 주체로서 재정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11)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5, 19-21쪽.

12)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103-118쪽.

13)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5, 60-65쪽.

14) 1930년대 전반기는 실업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노동력 과잉 상태에 있었고, 그 때문에 금광 개발자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금광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도시 주변 농부의 임금 수준보다도 훨씬 낮았다.(박기주, 『1930년대 조선산금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2-1, 경제사학회, 1988, 195-196쪽)

1930년대 금광 열풍을 통해 표면화된 일제의 식민지 산업 재편은 토착민의 세계와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토착민의 직업은 농민에서 광부로 바뀌었고, 그의 소속은 마을 공동체에서 금광 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생활 공간도 밭에서 금광으로 이동했다. 이제 토착민은 전근대 농경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근대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구성원이 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토착민의 노동자화가 외형상 금광 열풍에 편승한 ‘자발적’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제의 농업개발정책과 산금정책에 의해 조건 지어진 ‘비자발적’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식민화된 세계, 즉 금광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된 세계에서 광부란 농지가 없거나 농지를 박탈당한 농민이 생계 유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농민의 임금 노동자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때 토착민은 기존 고향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식민화된 세계로의 비자발적 이주를 경험하는 존재, 즉 일종의 디아스포라가 된다. 그는 여전히 고향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금 노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서 과거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고,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유대를 확인할 수 없다. 딱딱한 바위 위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각자 ‘벤포’를 까먹는 마을 사람들(광산 노동자들)의 정경은 고향을 잃은 토착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상징처럼 보인다. 이 세계에서 토착민들은 여전히 고향에 거주하지만 고향으로부터의 비자발적 이주를 경험하는 디아스포라, 또한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가 된다.

토착민의 디아스포라화는 제국주의 체제의 운용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란 농민을 땅에서 떼어내 금광 노동자로 재정체화

함으로써만 운용되는 체제였고, 그런 한에서 토착민의 디아스포라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체제였다. 즉, 디아스포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생산물이었다. 이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자발적’ 임금 노동자화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토착민의 ‘비자발적’ 디아스포라화와 다르지 않고, 조선 농촌의 식민화=근대화는 고향의 고향성 상실, 공동체의 공동체성 상실, 토착민의 토착성 상실 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식민화=근대화된 세계의 토착민은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에서 토착민(=디아스포라)이란 고향에서 고향을 떠난 이주민, 즉 고향에서 고향 아닌 고향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다.

3. ‘착실’의 윤리와 디아스포라적 감정

금광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된 세계에서 박왈수는 임금 노동자가 되기로 선택한다. 물론 임금 노동자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엄청난 맥을잡어서 최아무개같은 그런 대광업가가되어 전설(傳說)의 주인공이 될려는 욕심”(251) 아래 ‘자작 광부’가 될 수도 있다. “어데 제법 금이 나올 광구를 분광이나 하나 얻었으면”(252) 하는 그의 소망을 이루는 데는 어찌면 임금 노동자보다 자작 광부가 훨씬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왈수는 광산의 임금 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우선 경제적 계산에 있었다. 겨우 금이 나올 만한 분광을 얻더라도 다량의 금을 채굴하는 데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 또한 별 소득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비롯한 각종 경비를 헛되이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경제적 계산을 뒷받침하는 근대적 윤리관, 즉 “착실제일주의”(253)에 있었다. 임금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에게 “생활상의 진리는 착실(着實) 그것”(252)이다. 이 윤리관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전통적 공동체에서 ‘근면’을 통해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듯이,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도 ‘착실’을 통해 소망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근대화된 세계에서 착실의 윤리란 “근실한것만을 가르키는게 아니라 돈냥을 착실하게 잡았다는 것까지를 의미”(253)한다. 그래서 그는 늘 “헛되히 몇일동안을 광맥찾는데 허비해버릴 시간을 갖고있지 못하다고 굳게 자각”(253)한다. 말하자면, 착실의 윤리는 경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의 합리적 조직화를 내포한다. 게다가 착실의 윤리가 부각하면서 전통적 공동체의 근면함 역시 “부지런을위한 부지런이 아니고 착실히 돈냥을 잡아볼라는 부지런”(253)으로 재규정된다. 전통적 공동체에서 박왈수의 근면함이 경제적 목적 못지않게 마을 사람들과의 상호부조 관계에도 기여하는 덕목이었다면,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는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직업 윤리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착실의 윤리란 결국 식민지 근대 자본노동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시간과 임금 간 합리적 교환 관계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착실의 윤리가 토착민의 임금 노동자화, 즉 식민지적·근대 주체화를 위한 필수 조건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근대화=식민화가 농촌의 산업적 재구조화와 농민의 임금 노동자화를 수반한다면, 착실의 윤리는 토착민이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것이다. 식민지 토착 농민 박왈수는 착실의 윤리를 습득해 실천할 때 매일 “일원몇십전이라고 쓴 전표”(253)를 들고 퇴근하는 근대 임금 노동자로 재정체화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착실의 윤리 습득이 디아스포라적 감정의 잠재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박왈수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정체성 협상에 나서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고향 아닌 고향 또는 고향성을 상실한 고향에서 살아가는 토착민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광업 중심으로 재구조화된 세계에서 임금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땅에 기반한 공동체적 삶을 기억하고 또 그를 복원하고 싶어 하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 이백원 고놈만되면 어떻게 배추래도 심어서 팔 개똥밭이래도 한때기 사련만—이런것만 공상”(255) 하는 그의 모습이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중의 디아스포라적 감정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의 “공상”에는 땅에 기반한 과거 공동체(“배추래도 심어서 팔 개똥밭”)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가 되지 않았다면 “공허하고 피곤한 제 쓸쓸한 마음”(253)을 느꼈을 것이라는 박왈수의 예상은, 단지 자작 광부가 되어 돈벌이에 실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일시적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향 아닌 고향에서 박왈수가 느끼게 될지도 모르는 그 감정은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허하고 피곤한 제 쓸쓸한 마음”이 임금 노동자로서의 재정체화를 통해 해소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마음은 분명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허함, 피곤함, 쓸쓸함 등은 기본적으로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주체, 즉 고향 없는 고향에 거주하는 토착민(네이티브 디아스포라)에 의해 표면화될 수 있는 감정들이다. 이 감정들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임금 노동자가 돈 벌이에 실패하는 순간 언제라도 표출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그 감정들이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공허함, 피곤함, 쓸쓸함 등의 감정들은 디아스포라적 '상실감'의 잠재적 존재 형태들 또는 변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착민이 돈벌이에 실패할 때 그 감정들이 표면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무엇보다도 토착민의 돈 벌이 실패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의 정체성 협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공허함, 피곤함, 쓸쓸함 등은 토착민의 정체성 협상 실패를 증명하는 감정들일 수 있다. 근대적 식민 주체가 착실의 윤리를 통해 디아스포라적 감정을 잠재화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그는 착실의 윤리를 습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정체성 협상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디아스포라적 감정(부재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 변종들(공허함, 피곤함, 쓸쓸함)은 영원히 잠재적 영역에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박왈수는 정체성 협상에 성공해 임금 노동자로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이백원 고놈만되면 어떻게 배추래도 심어서 팔 개똥밭이래도 한때기 사련만—이런것만 공상”(255)한다. 그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도, 많은 땅을 구매해 대지주가 되겠다는 야망도 없다. 그는 단지 “개똥밭이래도 한때기” 마련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인물, 즉 땅에 기반한 공동체적 경제에서의 안정된 삶을 소망하는 식민지 조선의 토착민에 불과하다. 이는 그가 착실의 윤리에 대한 신념을 가진 임금 노동자이면서도, 부재하는 고향(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에 의해 조건 지어진 디아스포라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즉, 그는 과거 정체성과 현재 정체성 사이에서 탈구 위치를 경험하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그가 점심 식사 시간 남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지 않는 동기, 밤 시간 다음 날의 노동을 위해 잠을 청하지 않는 동기를 형성한다. 바로

그 디아스포라적 '그리움' 때문에 그는 남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남들이 잠을 잘 때도 금을 채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박왈수가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인 한, 착실의 윤리를 통해 디아스포라적 감정을 잠재적 영역에 봉쇄하려는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재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행동을 조건 짓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박왈수도 분광을 단념하는 게 아니다. 정질을하다 점심때가되면 남들이 던물을 끄러놓고 벤토를 한참먹는데 왈수는 시장한것도 잊어버리고 산을 헤맨다. 이구통이 저구통이 기웃거리며 때때론 신이나서 호미로 산허리를 각재보고 제법 돌썩지를 한자박들고 이리만지고 저리만지고 또어떤때는 눈에 쌍심지를 세워가지고 춤을 돌에다뿔어 보며 연신 손가락으로 문맥여보고 비치워보고한다. 꽤 쓸만한 돌같으면 한번 그의주위에 사람이 있나없나를 살핀뒤에 나무까치같은 걸로 표식을해두곤 그들을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밤에와서는 그놈을부서보고 깨보고 가라보고한다. 밤이늦도록 사발에다 붉은흙모새를 담어가지고 금분이 뺨짝하고 그의 눈초리를 쓰기만기대린다. (254)

착실의 윤리가 경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의 합리적 조직화라면, 인용문에 제시된 박왈수의 행동 방식은 명백히 그에 어긋난다. 이는 박왈수가 근면한 광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고향(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와 공동체적 세계에 걸쳐 있는 존재, 즉 탈구된 존재다. 그렇다면 밤낮없이 금을 찾아 헤매는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은 잠재화되어 있던 디아스포라적 감정이 착실의 윤리를 교란하며 임금 노동자의 신체를 통해 굴절되어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임금 노동자의 행동을 추동한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일원몇십전이라고 쓴 전표"를 매일매일 수령하게끔 하는 착실

의 윤리가 아닌, “개똥밭이라도 한때기” 마련하고 싶다는 소망과 여기에 내재하는 과거 공동체(부재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여기서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이 지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토착민의 정체성 협상 실패, 즉 공동체적 세계의 정체성과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열된 토착민의 존재 상태(탈구 위치)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토착민이 부재하는 고향(공동체)에 심리적으로뿐만 아닌 실천적으로도 정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제국주의에 의해 생산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제국주의에 의해 재구조화된 세계 질서에 순응하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부재하는 고향(공동체)에 정향된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시간·공간 구획을 위반한다. 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며 금덩어리를 찾는 데 몰두한다. 이와 같은 과잉된 행동은 분명 근대 임금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행동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향 아닌 고향에 거주하는 토착민, 즉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균열되어 있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행동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 방식은 그가 고향에서 고향 아닌 고향으로의 비자발적 이주를 경험한 존재이자 고향 아닌 고향에서 다시 고향(공동체)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존재, 말 그대로 ‘이동’하는 디아스포라임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이란 토착민의 탈구 위치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아스포라적 감정이 지닌 강력한 힘의 증명/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근대적 식민 주체가 착실의 윤리를 내세워 디아스포라적 감정을 잠재화하려고 할지라도, 이 감정은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선가 착실의 윤리를 교란하는 가운데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과잉된 행동으로 표면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디아스포라적 ‘상실감’

과 그 변종들(공허함, 피곤함, 쓸쓸함)이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토착민의 정체성 협상 실패를 의미한다면, 디아스포라적 '그리움'과 그의 과잉된 행동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토착민의 균열된 정체성(탈구 위치)을 증명한다.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귀결된다. 그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정체성 협상에 성공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필연적인 귀결처럼 보인다. 박왈수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로서 언제나 탈구 위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계속해서 과잉된/결여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재구조화된 세계에서 땅에 기반한 공동체적 정체성과 근대적 식민 주체의 정체성은 결코 절충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두 정체성은 시간과 공간 모두 이질적이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착실의 윤리로 디아스포라적 감정을 잠재화하려고 할지라도, 디아스포라적 감정은 그로 하여금 탈구 위치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의 신체를 통한 표현의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디아스포라적 감정이 표면화되었을 때, 착실의 윤리는 교란되고 근대적 임금 노동자의 실천은 과잉되며,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는 상호 불일치를 노출하게 된다. 박왈수의 죽음은 바로 이 과정의 최종적 귀결이다.

4. 디아스포라적 개입: 죽음 또는 내파

「미담」은 다음과 같은 도입부로 시작된다.

미담(美談)은 운명(隕命)하셨다. 수많은 미담중에 미담의 주인공중에 우리 박

왈수(朴曰洙)는 불칙스럽게도 세상을 떠났다. (243)

그리고 작품 말미에서 박왈수는 죽음을 맞는다.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박왈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광택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 하루 종일 점심도 거른 채 '착실'히 정질을 하던 끝에, 어느 날 운 좋게도 다이어마이트 폭발로 벌어진 바위 틈새에서 금광의 흔적('하빠아나')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 틈을 정으로 내려치는 순간 그 안에 남아 있는 화약이 폭발하게 되어 그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박왈수의 죽음을 두고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귀를 찌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왈수는 열길이나 높이 공중에 소셨는데 누구의 말을 들으니 그때는 벌서 다리와 팔이 저저끔 놀드라데. 그레 와 소동이나서 현장에 몰려오니 왈수는없어지고 세토막으로나눈 살명어리가 하나는 저만큼 구렁텅이에 하나는 나뭇가지우에…… 이렇게되니 벌서 그레 하빠아나에 정을넣다는 건 뻔한 사실루되고 불상하게도 우리고을 당대의 마담의 주인공은 비참한 최후를 막구마른거네. (257)

「미담」은 박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작품은 박왈수의 '미담(美談)'이 아닌 박왈수'라는' 미담(美談)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개에서 범된사람”(244) 박왈수는 종의 아들로서 과거에는 '바가지' 차고 이집 저집 밥을 구하러 다닐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던 인물이었지만, 근면함 덕분에 이제는 집도 마련하고 소도 키우고 아들 장가도 보낼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다. 이를 근거로 마을 사람들은 박왈수를 '미담'의 주인공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그는 임금 노동자의 삶을 살다 특별할 게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미담(美談)의 운명(隕命)'이란 과도한 몰욕에 사로잡힌 인물 박왈수에 대한 풍자, 다시 말해 1930년대 금광 열풍에

휩쓸린 배금주의자에 대한 일종의 풍자로 해석될 수 있다.¹⁵⁾

『미담』은 근면한 인물 박왈수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고향 아닌 고향에서 살아가(야 하)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점에 주목하면 ‘미담(美談)의 운명(隕命)’은 풍자라기보다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고발처럼 보인다. 작품 서두에 박왈수의 죽음이 배치되어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 ‘미담(美談)의 운명(隕命)’은 박왈수가 광구에 출입하는 순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다. 사실 그는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는 일에 능통한 인물이었지 바위 틈을 헤집고 다니며 화약을 끌라내고 금을 채취하는 일에 능통한 인물은 아니었다. 금을 채취하기 위한 그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디아스포라의 행동으로 본다면, 그의 죽음을 고향 박탈의 극단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작품 『미담』은 ‘미담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근면한 한 토착민이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되고, 최종적으로 고향 아닌 고향에 적응하지 못한 채 파국적 결말을 맞게 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에 의한 폭력적 근대화=식민화와 그에 따른 식민

15) 사실 식민지 시대 금광 열풍을 다룬 여러 소설 작품들은 이런 관점에서 소위 금광 열풍을 작품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유정의 『노다지』(『조선중앙일보』, 1935.3.2.-3.9)에는 금에 눈이 먼 나머지 금광에서 돌에 깔려 죽어가는 형을 두고 혼자 금을 훔쳐 도망치는 동생이 등장하고, 채만식의 『금의 정열』(『매일신보』, 1939.6.19-11.19)에는 금광의 부실한 구조물 사정을 잘 알면서도 금을 훔치기 위해 밤에 몰래 금광에 들어가 노다지를 캐다 결국 돌에 깔려 죽고 마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이 작품들은 1930년대 금광 열풍을 매개로 동시대 식민지 조선인의 경제적 궁핍을 폭로하는 한편, 물욕으로 인한 주체의 윤리적 타락 과정을 풍자하고 있다.

이미나는 『1930년대 ‘금광열’과 문학적 형상화 연구』(『겨레어문학』 55, 겨레어문학회, 2015)에서 『광업조선』 소재 금 모티프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1930년대 금광 열풍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검토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작품들은 대부분 황금에 대한 욕망과 탈윤리의 현실, 몰락한 지식인의 금광열 등을 풍자하고 있다.

지 조선인의 죽음을 고발한 작품으로 평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결코 한낱 희생자가 아니다.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은 상실감과 그리움이라는 디아스포라 특유의 감정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고, 그런 만큼 부재하는 고향(공동체) 쪽으로 정향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는 『미담』을 말 그대로 박왈수라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미담(美談)’으로 규정하게 해준다. 물론 고향(공동체)의 복원이라는 박왈수의 소망에 ‘식민 이전 전통적 상상계로의 회귀’ 욕망이 내포되어 있고, 그런 한에서 이미 신화가 되어 버린 과거를 현재에 복원하고자 하는 ‘문화적 퇴행’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박왈수의 퇴행적 소망에 ‘해방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상실된 고향 또는 공동체에 대한 몽상은 한편으로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변화의 지향점 역시 지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측면에서 금을 찾아 바위 더미를 찾아 헤메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행동은 “상상적인 방식으로나마 고향을 되찾고자 하는 디아스포라적 개입”¹⁶⁾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이 디아스포라적 개입의 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면, 그의 죽음은 디아스포라적 개입의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박왈수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처럼 보이지만, 디아스포라적 감정에 의해 추동된 과잉된 행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필연적 사건이다. 그 죽음은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탈구 상태와 이중 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조건 지어진 필연적 죽음인 것이다. 따라서 고향의 복원을 지향하는 디아스포라의 과잉된 행동이 부재하는 고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상상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디아스포라적 개입’에 그치는 것이라

16) 임경규, 『화이트 디아스포라 vs. 네이티브 디아스포라』, 임경규 외, 『디아스포라 지형학』, 엘피, 2016, 60쪽.

면, 이 죽음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 틈 구멍을 낸다는 점에서 실질적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토막으로나는 살땡어리”로 구체화된 박왈수의 죽음은 임금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 움직이는 제국에 시간적·공간적 균열을 유발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박왈수의 죽음은 제국의 영토와 인구에 실질적 손상을 가하는 사건이고(박왈수는 작품 속에서 정말로 바위 틈 사이 화약 잔여물을 정으로 내리쳐 폭발을 일으킨다. 이는 금광 작업장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한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근대화=세계화된 세계를 내파(內波)하는 자기파괴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자기파괴적 개입은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작동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사건이다. 사실 1930년대 일제는 산금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금광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조선광업경찰규칙(朝鮮鑛業警察規則)(1938)과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 같은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는 생산력 확충 계획에 따라 공업, 광업, 토건업 등 산업 각 부분에서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금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숙련 노동자의 보호와 통제를 위한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했다.¹⁷⁾ 그러므로 박왈수의 죽음이 ‘광부’의 죽음인 한, 그의 죽음은 산금정책을 통해 움직이는 제국의 신체에 최소한 한 사람 정도의 구멍을 뚫

17) “30년대 전반에 금광업은 급격히 성장하지만 노동자보호법의 부재 속에서 광산재해와 재해자의 수도 급증하였다. 30년대 후반에 생산력확충계획에 따라 공·광·토건업 전부분에 걸쳐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증산이라는 급박한 國策을 수행하여야만 했던 총독부로서는 노동력의 무한한 마모로 인해 생기는 노동력재생산 불능의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광산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박기주, 『1930년대 조선산금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2-1, 경제사학회, 1988, 184쪽)

어내는 디아스포라적 개입이 될 수 있다.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탈구 위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거꾸로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탈구 위치를 조건짓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 자체를 일순간 탈구적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 죽음의 순간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네거티브 디아스포라(negative diaspora)로 전환된다. 그는 죽음과 더불어 디아스포라 특유의 이동성(mobility)을 근본적으로 박탈 당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파괴적 개입을 통해 거꾸로 세계 자체의 이동 가능성을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탈구 위치를 경험하는 토착민이 자기 파괴를 통해 네거티브 디아스포라로 전환될 때,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생산물이면서도 제국주의의 내적 균열자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네거티브 디아스포라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최종적 정체성일지도 모른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근대화=식민화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 조선인들의 생활 공간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했고, 결과적으로 조선인의 (네이티브) 디아스포라화를 촉진했다. 그로 인해 조선인들은 새로운 제도와 문물에 적응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고향에 거주하면서도 고향을 잃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탈구 위치에서 디아스포라적 감정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고향 아닌 고향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했고,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정체성을 협상하는 가운데 정신적 균열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의 균열 상태에 둔감해지는 것, 또는 그 균열로 인한 고통을 끊임없이 감내하는 것, 아니면 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한 최종적인 (자기) 파괴적 실천을 감행하는 것.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자기파괴적 개입, 즉 네거티브 디아스포라의 형성은 일회적 삶

을 부정함으로써 그 실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유형에 속할 것이다. 박왈수의 죽음은 바로 이 마지막 유형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5. 제국주의의 불가능성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인구와 사물을 재배치하고, 기존 지도를 다시 그리며,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을 재정체화한다. 20세기 초 한반도 지역을 점령한 일본은 지리적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이 지역을 소위 '총력전'을 위한 '병참기지'로 재편했다. 일련의 토지 정책을 통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 식민지 본국을 경유한 서구 근대 문물의 현지화, '일본인'이라는 국민명의 법제화 등은 그에 수반하는 것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의 전통적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식민화=근대화된 세계에서 조선인들은 고향을 상실해 갔고,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탈구 위치와 디아스포라적 감정('상실감'과 '그리움')을 경험해야 했다. 식민지 조선인은 고향에서 고향을 박탈당한 존재, 즉 고향에서 고향 아닌 고향으로 이주한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했다.

김남천의 『미담』은 식민지 조선 농민의 디아스포라화와 그에 따른 죽음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왈수는 소작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근면함으로 마을에서 '미담'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지만, 일제의 농촌개발정책과 산금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산업이 재편되면서 임금노동자의 길을 선택한다.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이 선택은 착실의 윤리에 의한 디아스포라적 감정의 잠재화를 유도하는 한편, 디아스포라적 감정에 의해 추동된 토착민의 과잉된 행동(정체성 협상 실패의 표시)

과 그에 수반한 죽음을 유발했다. 이는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과 죽음을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 대한 이중의 '디아스포라적 개입'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박왈수의 과잉된 행동은 상상적인 방식으로나마 상실된 고향(공동체)을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다음으로 그의 죽음은 임금 노동자의 자기 파괴임과 동시에 그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내파였다. 이는 제국의 영토와 신체에 구멍을 뚫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디아스포라적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는 죽음의 순간 자신의 이동성을 전적으로 박탈당하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조건짓는 세계 자체의 이동 가능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를 통해 네거티브 디아스포라로 전환하게 된다.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제국주의에 의한 산물이라면,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죽음 또한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그리고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자기 파괴적 개입과 그로 인한 제국주의의 내파 가능성 또한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의 탈구 위치가 한낱 근대적 식민 주체만의 문제 상황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것은 거꾸로 제국주의의 구조적 불안정성 혹은 취약성을 조건짓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상 제국주의는 식민화한 영토에서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를 필연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내부적으로 균열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과 재편, 그리고 인구의 관리가 강화되면 될수록, 식민 주체는 더욱 더 탈구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디아스포라적 감정('그리움'과 '상실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의 주체는 재구조화된 세계의 윤리('착실'의 윤리)에 의존해 정체성 협상에 나서겠지만, 디아스포라적 감정을 영원히 잠재적인 것의 영

역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고향 아닌 고향의 토착민이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인 한, 그의 존재는 탈구 위치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그의 행동은 부재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에 의해 조건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미담』은 제국주의의 불가능성 혹은 취약성을 예증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알수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제국주의 내부에 내파의 힘이 잠재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점, 또한 그 내파의 힘이 일순간 자기 파괴적이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디아스포라 개념을 통해 김남천의 『미담』에 접근함으로써 근대화=식민화된 세계에서 토착민의 삶과 죽음에 대해 살펴 보았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토착민의 디아스포라화, 근대적 식민주체의 탈구 위치와 디아스포라적 감정, 그리고 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제국주의 체제의 불가능성 또는 구성적 취약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와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맺고 있는 역설적 연루 관계, 즉 네이티브 디아스포라에 의한 제국주의의 균열 가능성 역시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피식민 주체의 저항 지점, 즉 제국주의 체제의 실천적 불가능성과 함께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사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네이티브 디아스포라가 제국주의 체제의 내적 균열 지점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말이다. 디아스포라 개념과 그 감정에 주목하는 것은 근대적 식민 주체의 존재 상태(탈구 위치)를 포착하게 해주는 한편, 그 존재 상태를 조건 짓는 제국주의 체제의 균열 가능성 또한 사유하게 해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그것은 민족 대립이나 지배/저항의 문제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제국주의의 추문을 폭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남천, 『美談』, 『少年行』, 학예사, 1939.

2. 논문과 단행본

- 김성민·박영균, 「분단극복의 민족적 과제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대동철학』 58, 대동철학회, 2012, 43-62쪽.
-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한국인구학회, 2009, 29-58쪽.
- 곽명숙,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2012, 205-225쪽.
- 구모룡, 「윤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23-146쪽.
- 구재진, 「이산문학으로서의 강경애 소설과 서발턴 여성」,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392-415쪽.
- 김관웅, 「“디아스포라 작가” 김학철의 문화신분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7, 한중인문학회, 2009, 297-330쪽.
- 김미란,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273-307쪽.
- 김양선, 「강경애 후기 소설과 체험의 윤리학-이산과 모성 체험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197-220쪽.
- 김영주,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인식과 만주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2011, 115-141쪽.
- 김응교, 「백석·일본·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99-121쪽.
- 박기주, 「1930년대 조선산금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2-1, 경제사학회, 1988, 121-219쪽.
- 오문석, 「윤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149-176쪽.
- 윤은경, 「유치환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혼종성」, 『비평문학』 54, 한국비평문학회, 2014, 241-274쪽.
- 이미나, 「1930년대 ‘금광열’과 문학적 형상화 연구」, 『겨레어문학』 55, 겨레어문학회,

2015, 109-141쪽.

이유미, 「식민지 한국 정치소설의 모색과 이항우: 미주(美洲) 발간 『신한민보』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59-191쪽.

이춘매, 「김사랑의 소설에 반영된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삶과 이산(離散)」,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2010, 71-88쪽.

임경규, 「화이트 디아스포라 vs. 네이티브 디아스포라」, 임경규 외, 『디아스포라 지형학』, 앨피, 2016.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5.

하정일, 「지역·내부 디아스포라·사회주의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 47,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1, 84-106쪽.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최영석 역, 앨피, 2016.

비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정영주 역, 에코리브르, 2014.

Abstract

The Colonial Korean, Native Diaspora, and his Death
- A study of Kim Nam-Cheon's "A Beautiful Story(美談)"

Lee, Jin-Hyoung(Konku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of agricultural community and the native's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colonial Korea, and the internal ruptures in Japanese imperialism by reading of Kim Nam-Cheon's short story "A Beautiful Story (美談)" with a focus on the concept of "diaspora".

Kim Nam-Cheon's short story concerns the diasporization of a colonial Korean peasant, and his ensuing death. Park Wal-Soo -a tenant farmer- becomes the hero of "a beautiful story" due to his diligence. He chooses to become a wage-labourer when his agricultural village is reorganized due to Japanese gold mining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His choice induces the potentialization of his diasporic emotions which in turn lead to his excessive actions and ultimate death (a mark of his failure to negotiate his identity). The excessive actions and death of the native diaspora serve to demonstrate both the violence of Japanese colonial control and his double "diasporic intervention" in the modernized=colonized world. First, his excessive actions can be considered attempts to recover a lost home (even though it may be in an imaginative way), and second, the character's death can be perceived as the implosion of the wage-labourer and the modernized=colonized world both.

This paper's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diaspora and diasporic emotion sheds light on the existence of the modern colonial subject (dislocation), and the rupturability of the imperialist systems within which the native diaspora lives. This point may be the scandal of imperialism, which is hard to capture in terms of national antagonisms or control/resistance.

(Key Words: modernization, colonization, home, community, diasporic emotion, diasporic intervention, native diaspora, negative diaspora)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2일